

[보도자료] 쿠팡이츠, 전국우수시장박람회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활동 소개 외국인 통역 지원도

2026. 10. 13.



윤용근(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오른쪽 두번째)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9일 공주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기념하고 있다

- 전통시장 디지털 경쟁력 강화·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 소개
- 박람회 찾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역 지원 전통시장 상품·문화 체험 도와

2026. 10. 13. 서울 - 쿠팡이츠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충남 공주에서 열린 '2026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박람회를 찾은 외국인들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 공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전통시장 박람회다. 전국 전통시장과 유관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상품·먹거리와 우수 사례를 선보였다.

쿠팡이츠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디지털 점프업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는 'K-푸드 해외 도약 동행 프로그램' 등 주요 상생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온라인 판매 전략 컨설팅과 산학협력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고, 일본 진출을 검토 중인 외식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문교육부터 메뉴 컨설팅, 일본 현지 판매 기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일 공주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쿠팡이츠 부스를 찾은 관광객들

쿠팡이츠는 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원활한 관람과 체험을 돕기 위해 통역 지원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현장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쿠팡이츠가 지원한 통역사의 안내를 받아 전국 각지 전통시장 부스를 둘러보며 지역별 특색 상품과 먹거리, 전통시장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통역 지원과 함께 기념품도 제공하며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박람회 행사에 참석한 윤용근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전통시장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쿠팡이츠의 전통시장 디지털 활성화 및 글로벌 판로 지원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